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20(금) ~ 2024.12.26(목)

제공일시 2025 1 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20(금) ~ 2024.12.26(목)

제공일시 2025 1 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미 환경청,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 중단 규제 승인

-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와 트럭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뉴욕타임즈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함
-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 처음 발표된 ‘어드밴스드 클린카 II(Advanced Clean Cars II, ACC II)’ 규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연방 대기 청정법과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함
- ACC II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됨
- 202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와 트럭의 35%가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어야 하며, 2030년에는 68%가 무공해 차량이어야 함

[\(임팩트온 2024.12.20\)](#)

2. 佛, 25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

- 유럽 원전 강국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의 상업 발전을 시작함
- 프랑스전력공사(EDF)는 21일(현지시간) “플라망빌 원전 3호기가 국가 전력망에 연결돼 1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밝힘
- EDF는 플라망빌 3호기가 내년 여름까지 10개 이상의 정지 및 재가동 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라고 전함
- 이날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대한 순간”이라며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 재산업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프랑스식 생태주의”라고 말함
- 마크롱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앞둔 2022년에 14기의 신규 원전을 205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공약함

[\(한경닷컴 2024.12.22\)](#)

3. 일본 정부, 비상상황 발생시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장 인수 추진

- 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요물자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공급이 정체돼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에 대해 기업 동의를 얻어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24일 제시할 예정임
-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지침을 확정할 방침임

[\(매일경제TV 2024.12.23\)](#)

국내 정책

1. 석화·태양광 사업재편에도 31조 투입

- 2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금융 공급안에 따르면, 내년 정책금융 247조원 중 136조원이 첨단, 미래 유망, 사업 재편, 벤처·중기 육성, 경영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 투입됨
-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를 비롯해 새롭게 선정된 바이오 및 인공지능(AI)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이 배정됨
- 21조5000억원은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 방위, 나노, 딥사이언스에 투입되고, 태양전지와 AI가 추가됨
- 공급과잉 문제로 위기가 커진 석유화학산업은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31조원) 분야에 처음 들어감. 태양광발전 등도 포함됨

[\(매일경제 2024.12.25\)](#)

2. '친환경 경제활동' 범위 확대... 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개정함. 개정안은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와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임
- 먼저, 물 목표에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함
-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 유형을 대폭 신설·보강함
-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하도록 함

[\(전기신문 2024.12.23\)](#)

3. 기재부 '탄소크레딧 시장' 도입 검토... "개인도 탄소감축분 시장서 거래"

- 정부가 온실가스 소(小) 배출기업과 개인 등에도 탄소가격체계를 도입하는 '탄소크레딧 시장'을 검토함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4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함
-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美 기후정책의 기초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화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전망하고 의견을 교환함
- 회의에서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구상안'도 논의됨. 대기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뿐만 아니라 개인과 소기업 등도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방안임

[\(이데일리 2024.12.19\)](#)

글로벌 기업

1. 혼다·닛산, 합병 협의 개시... 2026년 현대차 제치고 세계 3위 전망

- 전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7~8위 기업인 일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23일 두 회사의 합병 협의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함. 두 회사는 내년 중에 합의를 완료하고, 2026년 여름께 실질적 합병을 끝낸다는 계획임
- 우선 협상에 돌입한 닛산과 혼다는 전기차(EV) 플랫폼 공동화, 고용량 배터리 개발, 자동차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공급망 일원화까지 경영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함

[\(한겨레 2024.12.23\)](#)

2.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 2025년 1분기 가동 개시... 글로벌 ESS 시장 공략

-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2025년 1분기 가동 개시를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CNEVPos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함. 이로써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지난 5월 23일 착공부터 완공까지 7개월 가량이 소요됨
-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테슬라의 첫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로 글로벌 진출의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베타뉴스 2024.12.25\)](#)

3. 폭스콘, 전기차 배터리 中공장 건설에 1200억 투자

- 애플의 최대 위탁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이 중국 정저우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6억위안(약 1200억원)을 투자함
-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은 전날 대만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폭스콘 신에너지 배터리(정저우)'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힘
- 이번 투자 계획은 폭스콘이 전기차와 반도체, 로봇 등 수익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짚음

[\(한경닷컴 2024.12.25\)](#)

4. 전기차 시장 무한경쟁에... 폭스바겐, 리튬 광산 직접 투자

- 폭스바겐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캐나다 리튬 채굴 업체의 지분 9.9%를 4810만달러(약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유럽 자동차 제조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광산 투자에 나섬
-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회사인 파워코와 함께 캐나다 리튬 채굴 업체인 '패트리어트배터리메탈스'의 지분 투자에 참여한다고 밝힘
-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패트리어트배터리메탈스로부터 10년간 매년 10만 톤의 스포두멘 농축액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됨

[\(서울경제 2024.12.19\)](#)

국내 기업

1. 삼성물산, 칠레 녹색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참여

- 삼성물산이 칠레 녹색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참여함. 향후 본사업 참여까지 연계할 전망이다
-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AES는 삼성물산과 칠레 녹색 수소·암모니아 이니셔티브 'INNA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
- 이에 따라 양사는 우선 이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데 협력하게 됨. 이후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 INNA 프로젝트는 칠레 북부 항구도시 안토파가스타에 녹색 수소·암모니아 생산 시설과 수출 터미널 개발하는 하는 사업임

[\(더구루 2024.12.24\)](#)

2. LG엔솔, 美 엑셀시오와 7.5GWh ESS 공급 계약... “현지서 선도적 지위 강화”

- LG에너지솔루션이 7.5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
-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회인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ESS 공급계약을 체결함
- 이번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롱셀 'JF2 셀' 기반 컨테이너 제품 'JF2 AC LINK'를 공급함

[\(세계일보 2024.12.21\)](#)

3. '한 숨 돌린' 한화큐셀, '2조1000억원' 자금 지원 美 정부 최종 승인

-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로부터 14억5000만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대한 최종 허가를 획득함. 투자비의 약 60%를 지원받아 내년을 목표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 완성에 박차를 가함
- 23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PO)으로부터 14억5000만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음

[\(더구루 2024.12.23\)](#)

4. HD현대, 테라파워와 '소형 원전' 핵심 설비 개발 '맞손'

- HD현대가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의 핵심설비 개발에 본격 나섬. HD현대는 테라파워로부터 원통형 원자로 용기(Reactor Vessel)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
- 이번에 수주한 원자로 용기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시에 345메가와트(MW) 규모로 설치할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odium Fast Reactor, SFR) '나트륨(Natrium)'에 탑재될 예정임

[\(이비엔뉴스 2024.12.20\)](#)

美에너지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3배 증가 전망... 2조원대 DAC 지원 사업 시작

- 미국 에너지부가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음. 이에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DAC(직접공기포집) 기술 상용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음
- 글로벌 싱크탱크 엠베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처음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음. 에너지부는 대기직접포집(DAC)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지속가능성 미디어 카본헤럴드는 19일(현지시각) 전했다
-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로렌스 버클리국립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2028년 74~132(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6.7~12%를 차지하는 규모임
- 에너지부 산업효율·탈탄소화 사무소의 애비 솔츠 책임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어디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 미국 전력 부하의 4%가량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는 2017년부터 6년간 전력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음. AI 서버는 더욱 강력한 칩과 집중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특히,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센터들이 등장하면서 전력 수요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는 신규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1GW 규모의 전력 용량으로 건설되고 있음
- 미국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엠베가 17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미국 전체 발전량의 17%를 차지했음. 이는 15%를 차지한 석탄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임
-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00년대 초반 50%에 달했으나,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으로 2024년 15%까지 줄었음. 엠베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원인인 석탄 발전소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현재 아이오와주와 사우스다코타주 등 10개 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를 달성했음. 특히, 아이오와주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전체 전기의 60.2%, 사우스다코타주는 54%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음. 텍사스주에서도 올해 3월 태양광 발전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을 넘어섰음
- 기존의 석탄발전소들도 문을 닫음. 환경 미디어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월 미국의 10대 석탄발전소 중 5곳은 2028~2038년 사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8GW 규모의 노후 석탄발전소들도 2040년까지 폐쇄될 예정으로 확인됨. 카나리미디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23년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에 탄소중립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교체 전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는 DAC 기술에 대한 큰 투자를 예고했음. 미국 에너지부 청정에너지 실증 사무소(OCED)는 19일(현지시각) DAC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18억달러(약 2조605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카본헤럴드가 보도했음.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 4개의 DAC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이번 지원 사업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뉨. 인프라 접근 플랫폼(Infrastructure Access Platforms, IAP)에는 최대 3건, 각각 2억5000만달러(약 3619억원)까지 지원함. 중규모 상업용 DAC 시설은 최대 8건, 각각 5000만달러(약 724억원)까지임. 대규모 상업용 DAC 시설은 최대 6건, 각각 6억달러(약 8686억원)까지 지원함

- 연방정부는 최대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부담함. 에너지부는 1차 지원에서 전체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신청 접수는 2025년 7월 말까지 진행되며, 같은 해 12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함. 2026년 봄부터는 선정된 사업자들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4.12.24\)](#)